

##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천국시민 삶의 훈련의 장 열린다

### 17일 대학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영력있는 강사진 동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우리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올해도 각 부서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집중적으로 영성훈련을 하는 겨울수련회 및 겨울 성경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주 17일(목)에 시작하는 대학부 수련회를 필두로, 계속될 8개 교회학교의 계절학교는 매주 진행되는 교회학교 집회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충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부는 어린이들이 교회는 곧 하나님의 집이며 기도하는 집임을 알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특권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23일과 24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12시 40분까지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한다.

유년부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매일의 삶에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알아 전도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려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기간은 23일에서 25일 3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이다.

‘꿈을 키우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24일과 25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초등부의 성경학교는 예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가지며 그 꿈을 믿음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려고 한다.

중등부와 고등부는 2박 3일간 광성교회 훈련원에서 연합으로 수련회를 가진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역사관, 세계관, 경제관 등 모든 분야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려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저녁부흥회의 강사는 김재성 목사로 김목사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갈빈의 성령론”을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열매맺는 가지”라는 주제 아래 광림수도원에서 가질 대학부 수련회는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최근

귀국한 오성종 목사를 모시고 2박 3일간 진행한다.

청년부는 이만열 전도사를 강사로 모시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청년의 때,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자 한다.

특수교육부서인 사랑부도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를 연다.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주제 하에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개최된다.

교회학교의 매주일 진행되는 집회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새로운 결심을 함으로 생의 획기를 삼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부서  | 주제                | 일시             | 장소       | 주강사     |
|-----|-------------------|----------------|----------|---------|
| 유치부 |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자   | 2월 23일 ~ 24일   | 유치부실(지하) | 구미경 전도사 |
| 유년부 |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 2월 23일 ~ 25일   | 유년부실(2층) | 미정      |
| 초등부 | 꿈을 키우는 어린이        | 2월 24일 ~ 25일   | 초등부실(4층) | 김주아 전도사 |
| 중등부 |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    | 2월 24일 ~ 26일   | 광성훈련원    | 김재성 목사  |
| 고등부 |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    | 2월 24일 ~ 26일   | 광성훈련원    | 김재성 목사  |
| 대학부 | 열매맺는 가지           | 2월 17일 ~ 19일   | 광림수도원    | 오성종 목사  |
| 청년부 | 청년의 때, 말씀을 따라 삼가자 | 2월 28일 ~ 3월 1일 | 소망수양관    | 이만열전도사  |
| 사랑부 | 성령이 임하시면          | 2월 22일         | 사랑부실(2층) | 유수영전도사  |

## '94 행사조직 완료

기획위원회(위원장: 유윤진 장로)는 '94 행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을 완료하였다. 올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많은 행사들을 치르며, 모든 일을 통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속사도행전>을 쓰는 교회가 되자.

| 행사명                    | 기간               | 준비위원장 | 지도교역자   |
|------------------------|------------------|-------|---------|
| 제 2회 한교회·한가족·한마음 축제    | 5월 5일            | 노문환   | 권상석     |
| 제 5차 김치(KIMCHI) 세미나    | 5월 25일 - 6월 2일   | 오정수   | 임진태     |
| '94 흥해작전               | 6월 6일 - 6월 19일   | 이영세   | 김주아·유순화 |
| '94 전교인 가족수련회 및 여름성경학교 | 7월 25일 - 7월 28일  | 유윤진   | 원필현     |
| '94 교회·학교 교사 체육대회      | 10월 3일           | 김광신   | 장용휘     |
| '94 비전 2000 운동         | 10월 2일 - 11월 20일 | 홍정호   | 김재호     |
| '94 성탄축하의 밤            | 12월 24일          | 박철훈   | 최병호     |

창세기강해



이 중 윤 (목사·당회장)

## 죽음의 의미

(창세기 5장 28 ~ 32절)

중세기 때 유럽의 많은 학자들이나 명사들은 자기의 책상 위에 해골을 올려놓고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종교적 분위기가 가득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골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더듬어 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가야 할 길을 찾기도 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인생이 짧은 길든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요, 또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존재이므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족장들의 이름이 '몇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는 말과 함께 계속 나옵니다. 즉 살아서 향수한 나이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각은 알 수 없다는 교훈을 깨달아야 하였습니다.

### 1. 모든 사람에게 오는 죽음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곳은 아무 곳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서를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언제든지 바로 내 앞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였습니다.

### 2. 죄의 삶은 사망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 현상의 하나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생성이 있고 성장 과정이 있고 소멸하는 원리에 따라서 죽음도 하나의 순환 과정(Life Cycle)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죽음이 이 세상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입니다(롬5:12).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 된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헬라와 로마 사람들은 죽음을 어두운 곳, 두려운 곳, 캄캄한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강 저편으로 절망의 뱃사공에 의해서 실려 죽음으로 떠내려 간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커는 「죽음에 관하여」라는 그의 책 속에서 "어린아이가 캄캄한 곳에 가기를 두려워하듯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 하는 이유는 죽음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죄로 인한 형벌이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히9:27).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 3.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심

죄의 삶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복하셨습니다. 첫번째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두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무덤을 바라보면 어두움과 부패와 절망과 죽음만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면 빛과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 모든 산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안에 있는 그는 영광의 승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 10절에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희망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 전대 무엇을 가릴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하면서 죽는 것이 더욱 좋다고 말하는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을 너희를 위하여 해야 하기 때문에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간 두 종류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루어도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일 것이며 비록 땅 위에서 천대를 받았을찌라도 하나님을 섬기다 죽은 자라면 영광의 삶이 약속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5-56).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 ✦ 순례자 컬럼 ✦

#### 참사랑

사랑은 신령한 선물이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령한 은혜에 속한다. 이 거룩한 사랑은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음이 없이는 참 사랑이 될 수가 없다.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자각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그 위대하신 사랑을 감격하며 받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랑을 거짓되게 받게 된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알아내는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나눠줄 수 없는 자라면 그 인생은 광야와 같고 황무지와 같아 허망할 것이다. 우리 모두 참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

**고3**의 정서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모태 신앙인으로 어떤 유혹도 거뜬히 뿌리치며 주일 성수를 당연히 하던 내게

고3으로 지낸 지난 한 해는 넘어짐과 갈등의 시기였다. 나는 미술대학을 지망했었고 미술학원에서는 주일마다 시험을 친다고 출석을 강요해 왔다. 학기 초에는 그런대로 물리칠 수 있었지만 입시가 점점 다가오면서 남들은 시험을 쳐서 실력을 가늠해 보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이 불안해졌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자 대답은 눈에 보듯 흰한 것이었기에 어느 주일엔가는 부모님마저 속이고 학원으로 발길을 옮기고 말았다. 학원의 시험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로 달려가 마지막 예배는 드렸으나 마음이 개운치 못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내 스스로 학원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다시 시작되는 학원의 압력...

결국 아빠에게 이 문제를 털어 놓았다. 전혀 뜻밖에 너무도 기뻐하시는 아빠의 모습 때문에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신앙적 고민을 하는 것이 대견하셨던 모양이다. 3시간에 걸친 대화 속에서 결론은 예상대로였으나 그날 아빠와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을 한걸음 더 성장케 해 주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하는 열망을 살며시 불어 넣어 주셨다. 주일마다 다른 아이들처럼 시험을 치르지도 못했고 그림 그리는 시간도 짧았지만 실기에서 뒤지지 않게 지혜와 실력과 의지를 주셨고 시험장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평소

◆ 생활속의 이야기 ◆  
**그래도, 할렐루야!**  
오 선혜 (대학부 1년)

에 쌓아온만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전기대 발표가 끝난 지금, 난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 떳떳하지 못하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난 정말 누구보다 대학 입시에 합격하고 싶었다. 그래서 후배들

에게 내가 걸은 주일성수의 길을 따르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었고, 입시생을 둔 부모님들께도 신앙교육을 우선하는 가정으로서 본이 되고 싶었다. 어찌했든 하나님과 신앙을 가진 분들 앞에서는 내뎌는 정말 힘들게 주일을 지키면서 신앙인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믿음을 지키려던 마음의 동기로 인해 떳떳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나와서 씨름은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을 신앙인으로 용기있게 사는 데에 큰 힘이 될것이다.

불합격 소식을 들을 때에도 내 스스로도 이상하리만큼 어떤 원망의 마음도 들지 않고 보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했던 순간들만 떠올랐다. 그래서 또 감사했다. 지금도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음에 감사하고, 나약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믿음을 주셨음이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의미있는 생애를 살고자하는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셨음이 감사하고, ...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라”(창 2:3) - 일년 동안 씨름 하던 말씀!

◆ 순례자 캠페인 ① - 바른 예배드리기 ◆

1. 5분 일찍 오기
2. 앞자리부터 앉기
3. 먼 곳부터 주차하기
4. 드리고 받는 예배  
(예배순서와 그 의미)
5. 가정예배 드리기

교회 설립 초기에는 예배시간 중에도 흰종이에 차량번호를 적어 그 차의 주인을 찾곤하던 일이 종종 있었다. 그 차의 주차상태가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표시였다.

요즘에도 맡겨 놓았던 자동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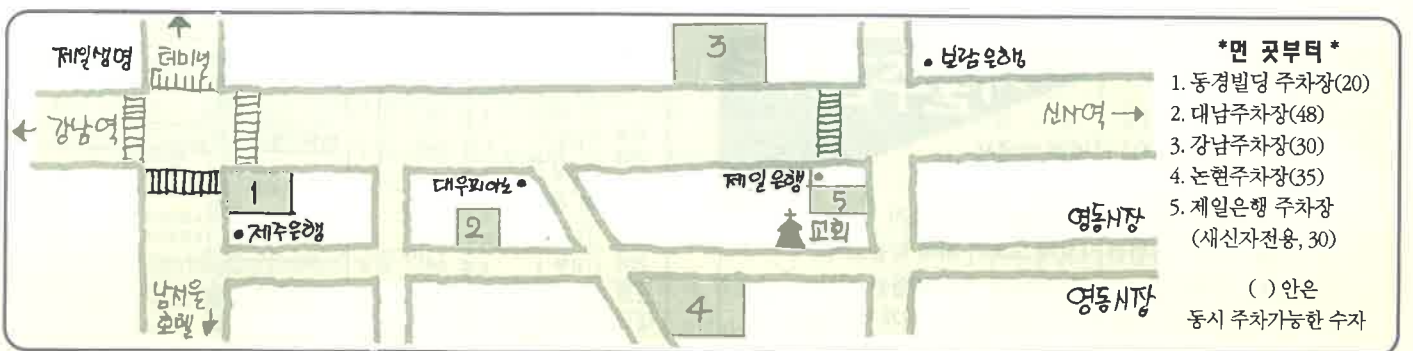
키를 아무 말씀 없이 가져가거나, 아예 맡겨 놓지않은 채 주차해 버려서 다른 차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차량관리 위원들은 예배실에 들어가서라도 차의 주인을 찾아오고 싶으리만큼 당황하곤 한다. 주차질서를 바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한가지 더 기억할 일이 있다. 열 두분 차량관리위원들의 남모르는 수고이다. 돌아가며 참석하는 예배시간 외에는 거의 하루종일 봉사를 하지만 인원은 늘 부족하기만하다. 더구나 급한 일이 생겨 빨리 가야만 하는 성도가 인종에 차를 세워 놓았을 경우에는 대여섯 대의 차를 움직여 그 차를 빼 주어야 하는 일도 종종 있다. 몇몇 분들이기는 하지만 자

기자리를 고집하며 안내를 따라주지 않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아쉽다. 교회를 섬기는 일의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만 마치 일반 주차장의 일꾼처럼 함부로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는 종종 당황하기도 한다. 차량관리위원들에게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씨와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성일텐데...

우리 교회가 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모두 다섯 곳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교회에서 먼 곳에 주차하자. 특별히 하루종일 교회에 계실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떨어진 주차장을 이용하고 가장 가까운 교회 바로 뒷편 주차장일랑 새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하자. 예배시간을 염두에 두고 집에서부터 일찍 출발해서 주차하는 시간 때문에 예배에 늦는 일이 없도록 하자. 다른 차의 통행과 주차를 고려해서 차량관리 위원들에게 반드시 키를 맡기고 부득이하게 길가에 대거나 다른 차들과 다른 방향으로 주차할 때는 기어를 중립에 두자.

바른 주차가 바른 예배를 돕는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 문화오염은 어찌할 것인가?

**첫** 가락을 쓸 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서구화되었다고 좋아하며 귀걸이를 한 남자를 귀엽다고 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오염된 강물만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활 깊숙히 침투해 온 문화오염과 전통문화라는 이름의 무속행위를 고민해야 한다. 악취 풍기는 강물은 과학적 예방조치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겠지만 냄새도 없이 오염된 문화는 어찌할 것인가? 차라리 소음에 가까운 대중음악, 광란의 몸짓, 일부러 찢어 입은 바지, 흑인에 게나 어울릴 머리 모양, 해설까지 곁들인 무당 놀음, 불륜과 탈선을 조장하는 연속극...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다했다고 누가 떳떳이 나설 수 있으랴! 입시 위주의 암기식 학교 교육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만이라도 바로 서서 세상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진리와 공의가 무엇이며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 젊음을 불태워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圭>

## WANTED! 부채이탈!

병상에 계신 분들께 「순례자」를 배달하실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시내 10여개의 병원에 매주 40부씩을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이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은 「순례자」 편집부를 지도하시는 장윤희 목사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배포하고자 하는 병원

- 강남시립병원 · 강남 성모병원 · 국립 경찰병원 · 국립의료원
- 서울대학병원 · 순천향병원 · 서울 중앙병원 · 신촌 세브란스
- 영동 세브란스 · 이대부속병원 · 상계 백병원 · 보훈병원
- 테헤란병원

### ● 감사드립니다.

군복음화위원회와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하신 목회자 등 각 처에 발송하는 일을 맡아 수고하시는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 ● 기다립니다.

「순례자」 편집실에서는 성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원고와 제보,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과 사랑의 충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순례자생각

##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한다는 것

해리 블라미레스(Herry Blamires)는 「그리스도인의 사고」라는 그의 저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사고란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무장된 준거틀(a framework of reference) 속에서 훈련되고 무장되어, 세속적 논쟁의 논거를 다룰 수 있는 사고'라고 정의하였다. 이어서 그는 그리스도인답게 사고하는 표식을 다음의 여섯개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1.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2. 악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다.
3. 진리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는다.
4.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
5.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
6. 일상적인 것에서 거룩한 안목을 지닌다.

요약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있는 성경의 기본 진리들에 온전히 사로잡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 2:16) 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제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빌2:5-8)께 굴복하였기 때문이다.

### 70인전도대원 및 기도후원자 모집

- 모집기간: 1994년 1월 30일 - 2월 20일 (4주간)
- 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사무국 혹은 교구담당 교역자

## 장학생선발

장학금 신청은 2월 15일(화) 까지

장학회(회장:이남호장로)에서는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부서 지도 교역자와 부장 혹은 교구 담당 교역자의 날인을 받은 추천서를 성적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2월 15일(화)까지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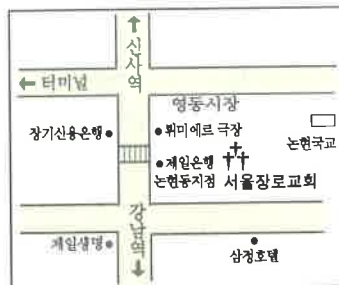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실고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나의 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
| 주일 예배   | I 부 오전 9시    |
|         | II 부 오전 11시  |
|         | III 부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 부 오전 11시   |
|         | II 부 오후 7시   |
| 금요 기도 회 | 오후 9시        |
| 새벽 기도 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 서울주간기도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신축을 위한 터전을 허락하소서
2.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번 계절학교를 통해 거듭난 사람,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게 하옵소서